

광주의 기억, 작품으로 승화시키다



오월항쟁의 현장인 옛 국군광주병원 본관의 작은 성당에 들어서면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른다.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경삼아 얹히고 실린 실타래와 한글 등 다채로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 만들어낸 터널 사이를 지나면 잠시 그 때로 돌아가는 듯하다.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신의 언어'로 지난해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MaytoDay' (메이투데이) 중 광주비엔날레 커미션(이하 'GB커미션')에 선보인 작품이다.

(재)광주비엔날레가 2018년부터 시작한 'GB커미션'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질문과 비엔날레를 통한 광주정신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은 특히 옛 국군광주병원 등 광주의 다양한 장소를 '발견'하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은 광주라는 도시를 미학적으로 재해석해 다채로운 작품을 제작했다.

오는 4월1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GB커미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신작을 비롯해 2018년 제작 작품, '메이투데이' 당시 선보였던 작품을 아우르는 전시로 옛 국군광주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작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불을 비롯해 배영환, 김성환, 타렉 아투이 작가 등 4명으로 광주의 역사, 기억, 트라우마, 전통, 건축 및 정신적 유산 등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불 작가는 구 국군광주병원에서 아크릴 거울 등을 활용한 신작과 2018년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에서 나온 철조망 등을 사용해 만들어진 작품을 선보인다.

배영환 작가는 5·18민주화운동 중에 사망한 고(故)윤상원 열사와 고(故)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차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김성환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5관에서 20세기 초 조선에서 미국 하와이로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만나는 시오타 치하루 작 '신의 언어', ©SACK, 서울, 2020과 시오타 치하루. 사진 이세현

이불·배영환·김성환·타렉 아투이 작가, 'GB커미션' 신작 선보여

이주한 이민자 역사와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운드 아트의 잠재력을 탐구한 타렉 아투이는 한국 음악 전통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사상이 단초가 된 신작을 광주문화재단에서 선보인다. 2019년 광주를 방문한 그는 전통악기, 용기, 청자, 한지 등 한국의 예술과 접목시킨 작품을 구상했다.

국군광주병원에서는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신의 언어'와 함께 2018년 작 카테르 아티아의 '이동하는 경계들'과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을 만날 수 있다. '이동하는 경계들'은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만난 5·18 유족들의 이야기와 정신과 의사 정혜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상실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군병원의 의자와 의족, 신발 등을 배치한 설치물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병원 본관 옆 붉은 벽돌의 '국광교회'에서는 '거

울의 울림'을 만날 수 있다. 병원에서 떨어진 수십 개의 거울로 만든 설치작품이다. 깨진 유리창 등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공간에 걸린 거울들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거울엔 손씻기, 군인의 머리 길이 등의 글귀가 그대로 적혀있다. 역사의 흔적들이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만났던 '채의진과 천개의 지팡이'를 지난해 '메이투데이'전에서 다시 선보인 임민욱 작가의 작품도 국군광주병원에 전시된다. 작품은 1949년 발생한 문경 민간인 집단 학살에서 생존했던 채의진 선생이 만들었던 지팡이 수백개로 이뤄진 설치물이다.

또 호 추 니엔이 동학운동에서부터 5·18까지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궤적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편집한 영상작업 '49번째 궤'는 문화전당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GB커미션 전시는 사전 예약제와 시간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문의 062-608-43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학교는 삶과 배움이 꽃피는 공간

김혜자·장경훈 등 6명 '민주학교의 탄생' 발간 공감과 연대, 참여와 책임 등 민주시민교육 함양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에는 그만큼 소중한 타인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합의하고 배워나가는과정의 중요성도 가르친다.

학교를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닌 민주시민을 향한 삶과 배움이 꽃피는 공간으로 상징한 책이 발간됐다.

교육 전문가와 대학교수, 일선 교사들 6명이 함께 펴낸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이 그것. 김혜자 교사를 비롯해 심성부 부산교육대 명예교수, 장경훈 교사, 정원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하나 문화프로그램 기획자, 허진만 씨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은 현재의 교실은 시민의식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요즘 아이들 일상에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윤리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배워가며 아이들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공감과 연대의식, 참여와 책임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300개가 넘는 민주학교가 생겼다. 그만큼 필요성은 공감하나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 중이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진정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이 변할 때 사회 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2장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3장은 민주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저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주했던 문제들을 수록했다.

김혜자 교사는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의 삶이자 시민의 일상이다. 학교는 구성원들이 자기 존재를 묻고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민주학교는 여기에 민주적 가치를 담아 시민으로 거듭나게 돕는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진희와 함께하는 강진 '신춘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30일 강진아트홀...아리랑팍소오케스트라 협연

강진군은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최진희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이번 공연에는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 최진희와 소프라노 김은혜, 바리톤 손승범이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희망과 추억의 봄을 선사한다.

최진희는 '미련 때문에', '꼬마인형', '봄날은 간다', '사랑의 미로', '때늦은 후회' 등을 불러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며, 김은혜와 손승범은 '얼굴', '내 마음', '지금 이순간', '그라나다' 등을 들려준다.

이날 협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아리랑팍소오케스트라는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클래식



최진희

을 비롯해 가요, 민요, 합창 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화합과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예술감독은 강민석이 며 지휘봉은 윤성규가 잡는다.

전석초대. 초대관은 29일 오전 9시부터 강진아트홀 대표소에서 1인 2매씩 배부한다. 문의 061-430-397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광주예술여행 콘텐츠 공모전'

4월1일~5일 이메일 접수

광주관광재단은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대표할 참신하고 매력적인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1회 광주예술여행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예술여행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광주의 유·무형 소재를 활용해 '광주만의', '광주다운' 예술여행 상품 개발 수 있는 콘텐츠로 예술체험형, 광주다움형 2개 분야로 나뉜다.

응모자격은 광주의 예술여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로 4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콘텐츠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5팀을 선정, 2차 제안발표를 거쳐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광주의 예술여행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활용되며 관광 상품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1-365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월31일 김정원 '비엔나의 봄'
4월28일 김진 '바로크와 재즈'
5월26일 황덕호 '재즈 인 더 무비'

'ACC 브런치 콘서트'



김정원



김진



황덕호

조, Op.90', '즉흥곡 4번 내림 가장조, Op.90',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다장조 K.33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 단조 Op. 27-2. 월광' 등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정원 특유의 감성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음색과 피아노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낭만을 이야기 한다.

4월 28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진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제목은 '바로크와 재즈'이며, 바로크 시대의 곡들인 파헬렐의 '개논', 바흐의 'Air' 등을 바이올린, 첼발로, 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자들의 자유로운 연주로 재즈화 해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6년부터 매년 선보여온 'ACC 브런치 콘서트'는 관객에게 일상 속 예술을 통한 휴식을 제공하고, 예술가들과 친숙하게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ACC 대표 시리즈 공연이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2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올해도 클래식,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행정상의 문제와 코로나 19 등의 이유로 패키지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브런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ACC가 최근 'ACC 브런치 콘서트'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콘서트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꾸민다. 31일 '비엔나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의 레퍼토리는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내림 사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